

# ‘한국축구’ 운명의 밤

오늘밤 11시 독일과 16강 결정전

## 승부보다 중요한 3가지

### 1. 승점

아시아 진출국 중 유일 ‘0’

28년만에 무승점 위기

### 2. 자신감

패배감·무기력 타 대회 영향

위기 극복정신 배워야 자산

### 3. 팬심

경기력 외 축구협회 불신 누적

투지 보여야 팬들 애정도 회복

한국 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엔 16강전 티켓 달고도 많은 것이 걸렸다.

세계랭킹 1위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16강에 합류하는 것은 ‘기적’에 기대야 할 만큼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또 다른 유형·무형의 목표들이 있다.

27일 오후 11시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릴 한국과 독일의 F조 조별리그 3차전은 우선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첫 승점을 얻을 마지막 기회다.

한국은 스웨덴·멕시코와의 1·2차전에서 0-1, 1-2로 패하면서 아직 승점을 쌓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조별리그를 승점 없이 전패로 마친 것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마지막이다. 이후 6번의 월드컵에서 최소한 1무라도 챙겼다. 이번 월드컵을 3전 전패로 마치면 한국 축구의 시계를 28년 전으로 돌리는 셈이 된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아직 승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웃 일본은 강호 콜롬비아를 2-1로 제압하고 세네갈에도 2-2로 비기며 승점 4점을 챙겼고, 호주도 덴마크에 1-1로 비겼다.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마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살라흐가 있는 이집트에 2-1로 승리하며 월드컵 첫 승리를 거뒀고, 이란 역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죽음의 조에서 1승 1무 1패로 선전했다.

우리만 이대로 승점 없이 돌아가면 ‘아시아 호랑이’의 체면은 크게 구겨진다. 승점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의 자신감이다.

두 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명실상부 세계 수준의 공격수인 손흥민(토트넘)도 “여전히 월드컵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월드컵은 세계의 벽을 절감하게 하는 무대다.

이번이 생애 첫 월드컵인 15명을 비롯해

23명의 태극전사가 이대로 벽에 부딪혀 돌아간다면 앞으로 남은 아시안컵이나 아시안 게임, 4년 후 카타르 월드컵 도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지더라도 ‘해불 만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싸우다만 소속팀에 돌아가서나 앞으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자산을 될 수 있다.

싸늘해진 팬심을 되돌리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이번 대표팀은 러시아에 오기 전부터 낮은 관심과 기대치를 넘어 냉소에 가까운 싸늘한 시선을 받아왔다. ‘그래도 한 번 믿고 응원해 보자’던 여론조차 스웨덴, 멕시코전을 거치며 차갑게 돌아섰다.

단순히 경기력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불신 등이 누적돼 생긴 비판 여론인 만큼 단순히 한 경기만으로 여론을 반전시키긴 쉽지 않다.

그러나 독일전이 여론 반전에 실마리를 줄 수는 있다. 물론 독일을 꺾어준다면 팬심을 불러 세울 나위 없는 기회겠지만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

패배한 1·2차전에서도 조현우나 손흥민, 기성용, 김영권 등은 호평을 받았다. 과오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던지는 투지를 보여줬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1명이 모두 온 힘을 다해 뛰면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애정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 20개 쏟아진 PK... 벌써 역대 최다

비디오판독 8회 영향 조별예선에서 기록 갱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이란 수비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낸 순간, 월드컵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한 줄 추가됐다.

호날두는 26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B조 조별리그 이란과 3차전에서 후반 8분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페널티킥을 얻었다.

이는 이번 대회 19번째 페널티킥으로 중전

최다였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18개를 넘어선 기록이다. 그리고 이란이 경기 종료 막판 상대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하나 추가했다.

전체 일정 64경기 중 56.3%인 36경기만에 20개의 페널티킥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이다.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은 역대 최다인 2002년 한일 월드컵(18개)을 기점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17개), 2010년 남아공

월드컵(15개), 2014년 브라질 월드컵(13개)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16강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기록을 썼다.

VAR 도입은 페널티킥 급증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다. 20개의 페널티킥 선인 가운데 VAR을 통한 ‘사후 처벌’은 8차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VAR은 네이마르(브라질)의 ‘할리우드 액션’을 잡아내 페널티킥을 취소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단 1건뿐이다.

뉴욕 타임스는 “VAR을 통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예전 대회와 유사한 비율로 페널티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이란, 깨지는 ‘금녀의 벽’

25일(현지시간) 밤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이란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경기 단체관람에서 이란 여성팬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 이란에선 축구경기장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지만 20일 스페인전에 이어 이날에도 단체관람 행사에 여성 입장이 이례적으로 허용됐다. /연합뉴스

## 스페인-포르투갈 16강행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에 진출했다.

스페인은 26일(한국시간)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칼리닌그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미 16강 진출에 실패한 모로코에 1-2로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시간에 극적인 동점 골을 넣어 2-2로 비겼다.

같은 시간 포르투갈은 러시아 사란스크 모르도비아 아레나에서 벌어진 이란과의 3차전에서 1-0으로 승리를 앞뒀다가 후반 48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해 역시 1-1 무승부 경기를 마쳤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승 2무, 승점 5에 골 득실(+1)마저 동률을 이뤘다.

승점, 골 득실마저 같을 경우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득점에서 앞선 스페인이 1위를 차지하고, 포르투갈이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포르투갈은 7월 1일 오전 3시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A조 1위 우루과이와 16강전을 치른다.

스페인은 7월 1일 오후 11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A조 2위 러시아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이란은 후반 극적인 동점 골로 승부를 16강 경쟁을 안갯속으로 몰고 갔지만, 스페인이 동점 골을 넣음에 따라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란은 월드컵 본선 5번째 도전에서도 16강 진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

## KIA, 야수 육성으로 그리는 ‘큰 그림’

우승멤버 평균 32.4세... 세대교체 위해 김석환·황윤호 등 2군 선수 1군 기회 늘려



KIA 타이거즈의 ‘육성 시스템’이 미래를 바꾼다.

KIA는 26일 SK와이브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투수 홍건희를 맡소한 자리에 내야수 김석환을 불러들였다.

김석환(사진)은 지난해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2년 차 선수. 이번 시즌은 김주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성격이지만 어찌 됐든 김석환에게는 첫 1군 나들이다.

김석환은 ‘국민 타자’ 이승엽을 키운 박흥식 2군 감독이 “이승엽을 떠오르게 한다”고 기대하는 KIA의 미래 자원으로 꼽힌다.

KIA는 올 시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2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수진 육성은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KIA는 지난해 우승을 이끌었던 ‘우승 멤버’ 그대로 올 시즌에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미치지 못한 타선 집중력과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외국인 선수인 베나디나를 제외하고 지난해 우승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32.4세다. 이병호와 김주찬이 81 동기고, 최형우가 1983년생이다. 우승 라인업의 ‘막내’ 안치홍도 1990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내년이면 30대에 진입한다.

연륜은 더해졌지만 반대로 고령화에 따른 대비도 필요한 만큼 올 시즌 KIA는 2군 운영에 변화를 준 것이다.

올 시즌 KIA 마운드는 젊은 투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성장세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지난해 그대로 꾸러진 야수진은 높은 진입 장벽과 전력 차이 때문에 정체된 모습이다.

황윤호, 최정민이 잠시 새 바람을 일으켰지만, 전체적인 판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KIA가 기대하는 또 다른 자원 류승현도 입단 3년 만에 처음 1군 무대에 올라 첫 경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경험 부족을 노출했다. 그러나 김선빈의 부상과 이병기의 부진 속 최원준과 박준태가 기회를 얻어 활약하고 있는 중이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새 야수들의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KIA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그려야 한다. 경험은 ‘미래 자원’들에게 큰 동기부여도 된다. 처음 1군을 경험한 류승현은 2군으로 내려간 뒤 7경기에서 2타수



13안타로 0.519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2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홈런도 터트리는 등 좋은 모습으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박흥식 2군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1군 경험은 의미가 있다. (류)승현도 많이 배워왔고, 공부도 했다. 다른 선수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한다”며 “시즌 젊은 야수들 11명, 12명을 집중해서 기용하고 있다. 경기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체력도 기용한다. 계속 뛰면서 버텨야 한다. 승패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기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경기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참 선수가 많은 팀 특성상 다음 야수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선수들의 기술이 워낙 좋고, 격차도 있지만 좋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환의 첫 1군 출전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날 문학구장에서 예정됐던 KIA와 SK와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